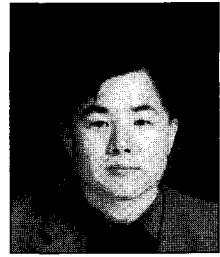


>>>

### 포장(Packaging) 범위 및 역할 재조명이틀터

소비자 편의 고려한 포장 창의성 강조



차 규 환  
제일제당 포장개발팀 과장

지난 1990년 제일제당에 입사, 포장개발을 위해 주력을 다한 차규환 과장이 제66회 포장기술사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차규환 과장은 “포장 전반에 대한 기술과 개념을 정리하고 싶어 포장기술사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며 “포장인생에 있어 한 관문에 도전했고, 그 도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합격소감을 대신했다.

식품 포장의 초창기로 포장표준화 및 선물 세트 포장이 중시되던 13년 전부터 제일제당 포장개발팀에서 일해온 차 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포장을 통해 부가가치가 상승되는 것에 대단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봄에 출시한 식용유가 포장만 바꾸었음에도 소비자의 선호도가 향상, 매출에 도움을 준 것을 보며 포장 차별화와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 그 부분에 더욱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내 포장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비해 ‘포장 창의성’ 부분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 편의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포장의 창의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차규환 과장은 포장 분야에 있어 포장의 방

향을 정립하고 싶어한다. 특히 그는 디자인 파트와 포장 파트가 혼용되는 것에 안타까워 하면서 현재 ‘포장’이란 단어로는 정의가 모호하다고 생각, 포장업계를 뭉칠 수 있는 새로운 단어의 창조를 기대한다.

차규환 과장은 “Design은 설계, 기획의 뜻으로 포장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Packaging이 Design계에 선점당함으로써 포장업계가 위축됐다”며 Packaging을 주축으로 포장의 범위 및 역할을 재조명 해 젊은층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 과장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과 포장, 두 분야의 CO-WORK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 파트가 경쟁상대가 아닌 포장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포장과 디자인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포장기술사’ 로서가 아닌 포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포장업계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차규환 과장.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포장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 뿌듯했다”는 차규환 포장 기술사는 포장분야를 이어 나갈 후배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